

문화산책

아름다움은 그대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리라

백승현

대동문화재단 전문위원



소년은 '국민학교'를 나왔으니 6명의 담임 선생님이 있었을 텐데, 5학년 담임 선생님의 이름만 기억에 남아 있다. 선생님은 소년에게 교내 독서대회에 나가보라고 권했다. 교내 대회에 나간 소년이 상을 받고는, 학교 대표로 교육청 주최의 독서대회에 나가 또 상을 받았다. 담임 선생님이 반 학생들 앞에서 소년에게 상장을 주고 머리를 몇 번이고 쓰다듬어 주었는데, 소년은 머리가 오랫동안 따뜻해지는 그 느낌을 환갑이 내일모레인 지금의 나이에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선생님은 소년에게 독서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쳐주셨다.

중학생이 된 소년의 학업 성적은 모든 과목이 그러저러이었는데, 국어 과목은 꽤 나은 편이었다. 국어를 가르치던 여선생님이 불러 그 학생에게 세계문학전집 중 한 권을 가져다주며 읽어보라고 권했다. 배개로 써도 될 만큼 두꺼운 '벽돌책'이었는데, 학생은 그 소설집을 일주일 만에 다 읽고 선생님에게 반납했다.

선생님이 빌려주신 책은 앙드레 지드의 '좁은문'이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의 성경 구절이 소설의 첫머리에 쓰여 있었다. 학생은 그 성경 구절을 불어로 기억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Entrez par la porte étroite.) 사촌 남매인 제롬과 알리시의 순수한 사랑과 청교도적 금욕주의 신앙 사이의 고통스러운 도덕적 선택의 문제를 담은 소설을 밤새 읽으며 소년은 정신적인 신열을

앓았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학생은 교내 백일장에서 상을 받아 문예부에 들어가게 되어 2학년까지 2년 동안 대동제라는 축제에 참여했다. 문예반은 시화전을 열었는데, 시 작품을 3편 내고 미술반에서 그림을 그려 대강당 벽에 걸었다. 축제 때 전교생이 모여 공연을 보았는데, 그때 문예반은 7명 정도의 문예반 선후배들이 모듬을 짜서 '연대시'라는 것을 낭송했다. 학생은 그 연대시 몇 편 중 한 편을 지금도 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옥사의 '광아'였다. '다시 천고의 뒤에/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이 광아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학생은 그 대목을 혼자서 낭송했는데, 전교생 앞에서 정말 초인이 된 듯한 기분으로 대강당에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목 놓아' 울부짖었다. 목울대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끝내고 나니 가슴 속엔 웬지 모를 따뜻한 후련함이 가득 찼다.

대학교 때 담임 여교수님은 시인이시기도 했다. 교수님의 '창작론' 강의에서 수필을 한 편 제출해 강평을 받았는데 '잘 썼다.'고 칭찬을 해주셨다. 글을 쓰면서 살기도 좋겠다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이 생긴 것은 그 칭찬을 받은 뒤였다. 또는 글을 쓰지 않아도 문학 작품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잡아가고,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가면서 평생을 살고 싶다는 태도가 생겼다.

최근 일이다. 어떤 인문학 강좌에서 특강 강사가 영화 '노마드랜드'를 소개하곤,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8번'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건네주었다. 영화를 관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네트 18번의 시는 이랬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언젠가는 그 아름다움이 기울어지고/우연이나 자연의 변화로 고운 치장을 뺏기기도 다./그러나 그대의 영원한 여름은 퇴색하지 않고./그대가 지닌 미는 퇴색되지 않으리라./죽음도 앓아가지 못하리.

/인간이 숨을 쉬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한/이 시는 살고 그대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리.'

네바다주의 '엠파이어'에서 남편과 함께 평생 일하며 살아왔는데, 공장의 문이 닫혀 버리고, 그곳은 우편번호마저 사라진 유령 도시가 되어버리고, 남편마저 죽음을 맞자, 여주인공은 직장과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진다.

주인공은 자신의 남은 생애에 필요한 집만 챙겨 길 위에서의 삶을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노마드(유목민)'들을 만나 연대하고, 광활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교감한다. 그러면서 남편과의 이별은 영원한 단절이 아닌 만남의 한 과정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주인공은 용기를 얻어 새롭게 '노마드'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주인공은 극중에서 '사랑을 망설이는' 젊은 '노마드'에게 이 셰익스피어의 시를 읊어준다. 과거 남편과의 결혼식에서 낭독했던 서약이었던 이 시를 들려주는 '용기를 더 내라'고 격려한다.

사실 이 시는 이 영화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들이 살던 집은 사라졌지만, 이 시를 기억하고 읊는 한 남편과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영원한 여름' 속에 살아있음을 깨닫게 된다. 여주인공의 내면은 이처럼 시편으로 인문학적인 품위와 정신적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상처와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인간적인 품성은 우리가 예술과 문화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해서 길러진다. 문화적 자산 속에서 이 고통스럽고 아픈 상실을 견뎌낼 힘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밭 담고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가장 높은 문화의 땅, '노마드 랜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락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다시 출발해야 한다. 우리 앞엔 또 길이 놓여 있다.

기고

속도보다 중요한 생명 가치, '안전'이 가장 빠르다

김응천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산업안전부장



현대 산업 생태계에서 '속도'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경쟁력이다. 정해진 납기를 맞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특히 중소 제조업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더 빨리 생산하고 시장에 내놓는 것이 곧 경영 효율의 극대화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서 수많은 산업재해를 경험하며 분명한 교훈을 얻어왔다. 서두름이 불러온 참사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이는 곧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이제 경영과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그 방향은 분명하다. "안전이 가장 빠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끼임, 부딪힘, 떨어짐 등 대부분 사고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이면에는 공통된 심리가 깔려있다. 바로 '잠깐이면 되겠다' 하는 조급함과 익숙함에서 비롯된 편의주의다. 안전을 위해 기계를 멈추고, LOTO(Lock Out, Tag Out) 절차를 수행하며,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과정은 당장 몇 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건너뛰고 싶은 유혹은 작업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늘 존재한다.

하지만 사고는 바로 그 '몇 분'을 건너뛰는 순간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그간 서둘러 쌓아온 모든 성과는 일시에 무너진다. 사고 수습과 원인조사, 작업 중지, 법적 분쟁, 그리고 기업 이미지 하락까지 고려한다면 즉급함으로 선택한 '지름길'은 결국 가장 먼 길이 된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얻은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전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국내 제조업 1,000개 기업을 분석한 연구(2023)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이후 수년간 노동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재해를 줄인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나타냈다. 이는 안전관리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산성과 직결된 '핵심 경영 요소'임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새로운 BI (Brand Identity)로 "안전이 가장 빠릅니다"를 도입하며 '안전'의 가치를 재정의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변화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이 곧 기본이자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속도의 기준을 재정의해야 한다. 진정으로 빠른 작업이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견고하게 안전을 확보하

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중심 예방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작업 전 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일시적인 시간 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안전이 가장 빠르다'는 가치가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넘어 '실천하는 안전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생산 목표 달성만을 독려했던 과거,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작업을 멈춘 노동자를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관리자는 실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을 갖고 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현장은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한다. 산업현장에서는 이 문장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안전하게 가야 끝까지 갈 수 있다".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속도를 늦추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사고라는 큰 위험을 피하고, 목표 지점까지 가장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라는 이 단순한 원칙이 우리 광주·전남지역 모든 산업현장에 자연스럽게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기 때문이다.

취재수첩

통합돌봄 전국 시행... '광주 모델' 시험대

이승홍

경제부 부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노인과 장애인에 병원이사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체계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영역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모델은 광주에서 먼저 출발했다. 광주시는 2023년 4월 '누구나 돌봄' 체계를 도입해 약 2만5000명을

지원했고, 시행 이후 고독사 발생이 2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방문간호와 구강관리,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3세대 돌봄'으로 확대하며 의료 연계까지 강화했다.

광주다음 통합돌봄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 통합장구와 케어메니저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신속히 연결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선별 중심 복지에서 필요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광주시는 국가 통합돌봄과 기존 체계를 결합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의료·요양 중심의 국가 돌봄에 식사 지원, 병원 동행, 안부

확인,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더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구조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을 나눠 정책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국가는 제도적 기반과 표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설계·제공하는 구조다. 광주의 사례는 이러한 역할 분담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 모델로 평가된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할 인력과 재정 확보, 의료·요양·복지 간 연계 유지, 지역 간 서비스 편차 해소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까지 포함하는 체계 전환도 요구된다. 이는 행정 방식과 정책 설계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통합돌봄은 도입보다 운영의 완성도가 중요하다. 광주에서 시작된 모델이 전국 단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각 지자체의 집행 역량과 재정 기반, 현장 대응력에 달려 있다. 이제 통합돌봄은 선언이 아니라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사설

때아닌 '쓰레기 종량제 봉투대란'의 진실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쟁 여파가 때아닌 쓰레기 종량제 봉투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이 불안해지자 석유화학 공장들이 가동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여기에서 추출되는 나프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생산량이 줄어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가 쓰레기 봉투의 원료인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데 이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설령 구하더라도 지난 1월 초 배럴당 56달러였던 나프타 가격이 지난 23일 139달러까지 오르는 등 원가가 올라 판매가를 올리지 않는 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당장 비닐봉지를 못 만들게 돼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커뮤니티·SNS를 통해 '가격이 오르거나 곧 품절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한 번에 많이 사는 사재기까지 폭발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갑작스런 주문 폭주로 유통망 병목 현상이 나타나 판매점으로 가는 물류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품질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이같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응책 가동에 나설 정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전국 지자체가 평균 3개월 사용량 이상의 종량제 봉투를 확보했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긴급지시를 통해 새 비닐 대신 기존 비닐 쓰레기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판매점의 매점매석 및 부정유통에 대한 강력단속, 생산라인 긴급 가동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상태다.

광주 동구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5개월분 재고를 확보했다. 물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순천시도 보도자료에서 "현재 종량제봉투 재고량 1개월분과 제작 원료 1년분을 이미 확보했다. 올해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은 물건이 아예 없는 진짜 대란이기 보다는 중동 사태로 인한 불안감이 만든 일시적인 품귀 현상이라는 얘기다.

정부와 지자체가 밝힌 대로 종량제 봉투 공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필요 이상의 구매나 사재기를 자제하는 국민들의 현명한 소비가 절실하다.

광주 '간편한 아침 한끼'사업 더욱 확대되길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산업단지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 '간편한 아침 한 끼'가 확대되고 있다. 하남·점단산단에 이어 최근 평동산단에 3호점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2층에 문을 연 평동점은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데 김밥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4분의 1가격인 1000원, 나머지 샌드위치·샐러드는 반값인 3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은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가 맡고 지난 2024년 광주시와 지역 농업과의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농협 광주본부부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 고품질 쌀을 기부하고 있다. 실제로 농협 광주본부부는 이날 500만원 상당의 쌀을 기탁했다.

이 사업은 산단 근로자들이 아침을 거르지 않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게 광주시가 비용 50%를 지원, 김밥·샌드위치 등 간편한 식사를 반값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2023년 광산구 하남산단 1호점을 시작으로 2024년 북구 점단산단에 2호점, 이번엔 3호점을 개점한 것이다.

도입 초기부터 노동자의 건강권 보강과 근로 여건 개선, 그리고 경제적 부담까지 줄이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현장의 호응 속에 빠르게 정착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첫 도입한 '산단 근로자 전원 아침밥'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10월부터 12월까지 효과적으로 운영했고 올해 국비도 2억5000만원을 확보하며 안정적 운영 기반도 갖췄다.

또 산단 노동환경 개선의 성공적인 사례가 돼 안양시, 창원시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졌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처럼 광주지역 산단 곳곳에서 조식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노동자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면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시행 첫해 1만9000여식에 머물렀던 제공량이 2025년 6만9000여식에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 사업을 약약 7만명에 이르는 지역 산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한다.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맞물려 이 사업이 전남지역 산단, 아니 전국 산단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신부 370-7050	논설실 370-7200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